

# “리치웨이’ 관련 서울 확진자 8명... 불법 확인시 행정조치”

(4일 오전 10시 기준)

나백주 방역통제관 정례브리핑 리치웨이, 건강용품 판매업체 5월 판매교육·세미나 진행 199명 코로나 검사·모니터링



나백주 서울시 방역통제관이 4일 오전 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발표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다단계식 건강용품판매업체의 세미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나백주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4일 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다단계 업체로 보이는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 전국 확진자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10명이며 이중 서울 지역 확진자는 8명이다”고 밝혔다.

나백주 방역통제관은 “해당 업체에서 다단계 판매와 같은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행정 조치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건강용품 판매업체로 알려진 리치웨이에서 판매 활동을 하는 구로구 70대 남성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았다. 3일에는 업체 직원 2명과 판매활동자 3명이, 4일에는

직원 2명과 판매활동자 1명 및 가족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에 걸려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이중 서울 지역 환자는 전날보다 7명 늘어난 8명으로 집계됐다.

리치웨이는 5월 23일과 30일에 판매교육과 세미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의 세미나는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판매 제품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노인들이 지루하지 않

게 레크리에이션 활동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한 노인들이 주변 지인들을 데려오게 하는 구조로 일종의 다단계 방식을 띤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설명했다.

나백주 방역통제관은 “시는 최초 감염경로를 조사하는 한편 업체 직원 11명과 5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리치웨이를 방문한 188명 등 총 199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4일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21명 늘어난 916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리치웨이 관련 7명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5명 ▲삼성화재 관련 2명 ▲부천시 쿠팡 관련 2명 ▲한국대학생 선교회 관련 1명 ▲해외접촉 관련 1명 ▲기타 3명으로 분류됐다.

교회에서 시작된 산발적 집단감염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31일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주사랑교회 목사가 방문한 개척교회를 중심으로 4일 오전까지 교회 목사와 교인 등 총 64명의 확

진자가 발생했는데 이중 서울 지역 환자는 1~2일 13명, 3일 5명이 추가돼 총 18명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강남 예수제자교회 교인이자 한국대학생선교회에서 활동하는 강북구 20대 남성과 고양시 거주자인 예수제자교회 목사가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달 1일에 9명, 3일에 2명이 코로나19에 걸려 관련 확진자는 총 11명이 됐다. 전날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은 1명은 금천구 거주 30대 남성으로 강남 예수제자교회 전도사다. 이 남성은 1차 검사 후 자가격리 중인 3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백주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판단된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방역으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조치보다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임을 줄일 수 있도록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종교단체를 통해 신도들이 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급

서울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4일부터 1차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접수 순서에 따라 1만명을 대상으로 자격 심사를 한 결과 첫 지급 대상 9073명이 선정됐다. 지원 금액은 64억원이다.

이번 지급대상 가운데는 1인 자영업자가 7935명으로 87%를 차지했고, 연 매출이 5000만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가 전체의 56%로 절반을 넘었다.

업종별로는 의복, 음식료품, 문구용품 등 소매업 사업자가 13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운수사업자, 음식점 사업자가 그 뒤를 이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난해 연 매출 2억원 미만, 2월 말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시는 유희·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지원하지 않는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CAC 글로벌 서밋 2020’

## 79% 소비진작 효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전 세계 전파

### ‘재난긴급생활비’ 추진 배경 설명 취약계층 돌봄공백 대응방안 모색

서울시는 4일 ‘CAC 글로벌 서밋 2020’ 복지 세션을 열고 코로나19 국면에서 취약계층 돌봄공백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시는 취약계층 긴급지원·돌봄 사례인 ‘돌봄SOS센터’와 총 164만 가구에 지급해 79% 생계형 소비 진작 효과를 낸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소개한다.

돌봄SOS센터는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돌봄복지 거점이다. 센터에 배치된 돌봄매니저가 갑

작스러운 질병과 사고로 긴급하게 가사·간병이 요구되는 경우부터 병원동행과 같은 일상적 도움까지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연계한다.

시 관계자는 “돌봄SOS센터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제도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방문·대면조사가 중단되면서 발생한 어르신·장애인 대상 돌봄 공백을 일시재가나 단기시설 입소 서비스 지원을 통해 메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전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로 지원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도 알린다.

시가 재난긴급생활비 사용액 빅데

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통, 요식, 식품 등 생계형 3대 업종에 79%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생계지원에 실질적 효과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CAC 글로벌 서밋 2020 복지 세션에는 서울시 사회복지 분야를 총괄하는 공무원, 영국의 저명한 사회복지실천 이론가 레나 도미넬리 스텔링대학교 교수가 참여한다. 도미넬리 교수는 지난 1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사회복지사를 위한 코로나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인물이다. 그는 이번 세션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복지의 역할에 대해 역설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

로나19로 인한 소비부진과 고용쇼크 위기 속에서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다. 또 재난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하위 계층을 아우르는 시의 정책적 노력과 실질적 효과를 전한다.

이어 노원구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오동준 관장이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재난상황에서 지역사회 복지기관이 어떻게 대응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고 이 과정에서 얻게 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복지재단 정은하 공공돌봄지원팀장이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김현정 기자

## “불평등 완화 위해 사회안전망 더 필요”

### 재러드 다이아몬드 교수

박원순 시장과 온라인 화상회의 서울시 정책·K-방역 등 대담

풀리처상 수상작 ‘총, 균, 쇠’의 저자인 재러드 다이아몬드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CLA) 교수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정책을 지금보다 더 늘리라고 조언했다.

박원순 시장은 4일 미국 LA에 있는 다이아몬드 교수와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CAC 글로벌 서밋 2020’ 대담에서 “서울은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지원, 전 국민 고용보

험을 추진 중인데 이런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지금 하는 것을 두 배로 해야 한다”면서 “미국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등의 치명률이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지금도 LA에는 폭동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 간 불평등도 있으므로 여러 측면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비교적 잘 대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민정서상의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박 시장은 “한국은 K-방역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것 같다. 지금까지 확산 속도 조절에 성공했고 서울의



박원순 시장이 4일 오전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온라인 국제회의 ‘CAC 글로벌 서밋 2020’에서 풀리처상 수상작 ‘총, 균, 쇠’의 저자인 문화인류학자 재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와 화상 연결로 ‘코로나19 이후 인류의 미래와 도시의 대응’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

사망자는 4명에 그쳤다”며 “확진자 동선을 추적할 때는 신용카드, 휴대전화, CCTV 기록 등의 정보를 분석했다. 각국의 방역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질문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국에서는 정부에 협조하고 정부 지침을 따르는 의

향이 더 있었던 듯하다”면서 “미국은 호주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나라로, 지금도 LA의 많은 사람은 마스크 착용 등을 하지 않는다.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현정 기자

### 사회서비스원·건강가정지원센터

## 맞춤형 가족서비스 제공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5일 마포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한부모, 다문화,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서울시민의 이해도를 높인다. 또 다양한 가족 형태별 가족친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문과 정보 공유를 진행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어르신·장애인·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공공이 책임지고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들은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노원·서대문)를 수탁·개원해 운영 중이다.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가족정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양 기관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에 적용, 가족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열린 어린이집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공동연구와 매뉴얼 개발을 통한 가족참여·자녀지원 프로그램 공유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상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